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반드시 대승전고를 올려 당 제 7차 대회정신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담보할뿐 아니라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 제122호양포장을 당 제 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훌륭히 완공하고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서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질적으로 하여 주둔지역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국방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리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첨단 기술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데서 최근년간에 진행된 부문별대회들의 기본정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시였다.

오중훈 7면대칭호쟁취운동발단 2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오중훈 7면대칭호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서도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평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부대, 구분대들을 본보기로 내세워 전군의 앞장에 서도록 하며 여러 가지 집단적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세기

를 주름잡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혁명강군의 최고지휘관 성원답게 백옥같은 충정과 투철한 혁명정신, 세련된 령군술을 지니고 군사정치

사업전반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올해 인민

군대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장내에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고 인민군대가 완벽한 공격과 방어능력을 겸비하고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에도 단호한 혁명전쟁으로 대담할수 있게 대사변을 위한 만반의 전투준비상태를 갖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승결도 뜻도 함께 하며 혁명의 한걸음 곳곳이 걸어진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리라는것을 굳게 확인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자주외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기라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참가자들은 새해 정초부터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전투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정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혁명군대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중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